

도시, 기억의 층

대덕을 읽는 10가지 이야기

소준철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소준철

경력

- (현)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공동연구원
(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현)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이사
(현)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걷고싶은도시』편집위원장
(현)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시민과세계』편집위원
(현) 자원을일구는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전) 한국일보 “쓰레기의 문법” 연재
(전)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한국체육대학교 강사

학력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전공 박사 졸업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전공 석사 졸업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국제관계학과 졸업

연락처

<http://www.juncholkimso.me>
junchol.kim.so@gmail.com

연구

단행본

- 『가난의 문법』(2020, 단독)
- 경향신문 선정 2020년 올해의 책 선정작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년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절멸과 간생 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2021, 공동)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년 세종도서(학술) 선정작
『똑의 인문학』(2021, 공동)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년 세종도서(교양) 선정작
『서울 동의 역사 - 강서구』(2024, 공동)

연구논문

- 「정부의 ‘자활’ 정책과 형제복지원 내 사업의 변화」(2021)
「청계천에서 난지도로」(2023)
「느린재난 앞에서 선 노인」(2024)

서평

- 「개입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2024)
「울면서 달려들어도 괜찮은 사회를 상상하기」(2023)
「‘상호의존’이라는 희망」(2022)
「‘강남화’라는 방법과 그 가능성에 대하여」(2019)
「기록과 ‘소설들’을 포개어 서울을 다시 읽기」(2019)

“도시, 기억의 층” 소개

1회차

8/19 (화) 15시-17시 30분

겹쳐진 도시, 대덕 with 소준철
강의

8/26 (화) 15시-17시 30분

관문도시, 대덕 with 소준철
강의

9/2. (화) 15시-17시 30분

기억지도 그리기 with 김윤정
참여형 워크숍

9/9 (화) 15시-17시 30분

이중도시, 대덕 with 소준철
강의

9/16 (화) 15시-17시 30분

골목을 걸으며 대덕 느끼기 with 김윤정, 소준철
답사 시작 지점: 회덕역 (예정)

2회차

10/14 (화) 15시-17시 30분

기억도시, 대덕 with 소준철
강의

10/21 (화) 15시-17시 30분

서로의 기억 기록하기 with 김윤정
참여형 워크숍

10/28 (화) 15시-17시 30분

이야기도시, 대덕 with 소준철
강의

11/4 (화) 15시-17시 30분

이야기를 함께 짓기 with 김윤정
참여형 워크숍

11/11 (화) 15시-17시 30분

우리 도시, 대덕 with 김윤정, 소준철
답사 시작 지점: 신탄진역 (예정)

대전과 대덕



겹쳐진 도시, 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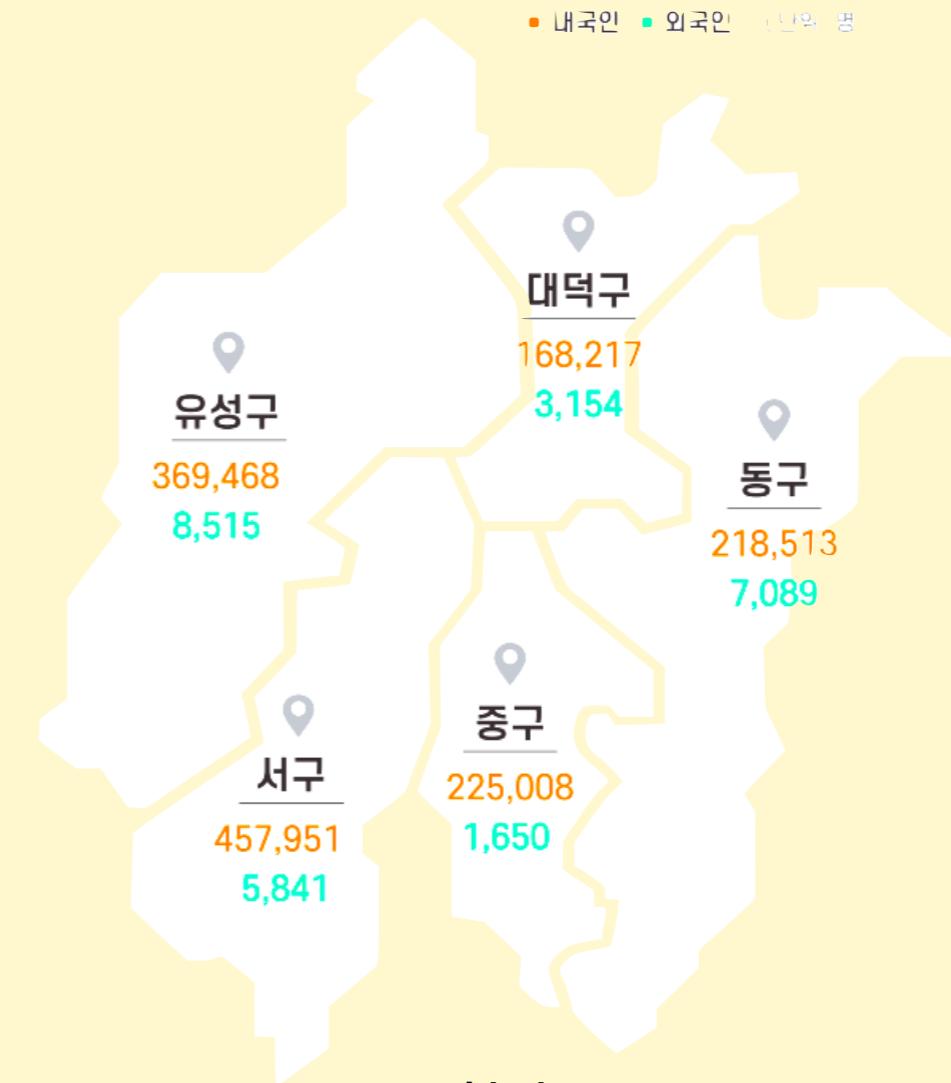
도시, 기억의 층 (1)

소준철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공주목의 대전천

‘공주’, ‘회덕’, ‘진잠’이 ‘대전’으로



주민등록인구

1,464,406명

공주목의 대전천



공주목, 1872년 지방지도

'공주목'의 위세 상상하기

세종실록지리지

- 본래 백제의 웅천이다. 제22대 문주왕(文周王)이 한성(漢城)에서 이곳으로 옮겨 도읍한 지 63년을 지나서, 26대 성왕(聖王)이 또 도읍을 남부여(南扶餘)로 옮기었는데, 당(唐)나라 고종(高宗)이 소정방(蘇定方)을 보내어 신라의 김유신(金庾信)과 더불어 백제를 평정하고는, 웅진 도독부(熊津都督府)를 두고 군사를 머물러 두어 진압하였는데, 당나라 군사가 물러가매, 신라 문무왕(文武王)이 모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신문왕(神文王)이 웅천주(熊川州)를 고쳐 도독(都督)을 두었고, 경덕왕(景德王)이 웅주(熊州)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太祖) 23년 경자에 공주(公州)로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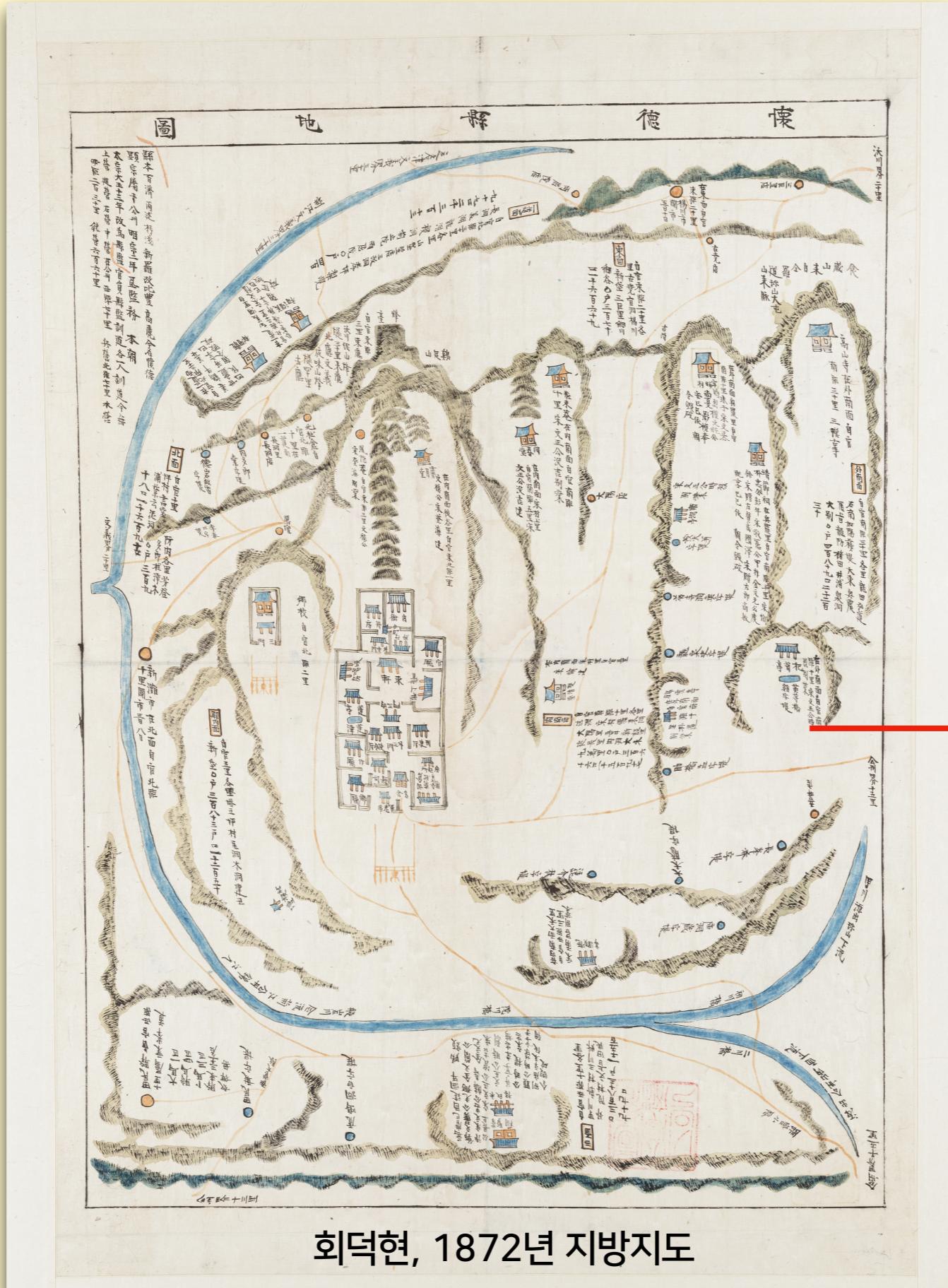
성종(成宗) 2년 계미에 처음으로 12목(牧)을 두매, 곧 그 하나이었고, 을미에 12주(州)에 절도사(節度使)를 두어 공주 안절군(公州安節軍)이라 칭하다가, 현종(顯宗) 임자에 절도사(節度使)를 폐하였고, 9년 무오에 지공주사(知公州事)로 강등하였다가, 충혜왕(忠惠王) 후 2년 신사에 원나라 활활치 평장(闔閭赤平章)의 아내인 경화옹주(敬和翁主)의 외향(外鄉)이라 하여 목(牧)으로 승격시켰다.

-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회덕(懷德)에 이르기 15리, 서쪽으로 대흥(大興)에 이르기 41리, 남쪽으로 이산(尼山)에 이르기 34리, 북쪽으로 천안(天安)에 이르기 48리이다.
- 호수가 2천 1백 67호요, 인구가 1만 49명이다.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78명이요, 진군(鎮軍)이 2백 3명이요, 선군(船軍)이 6백 99명이다.
- 관할은 군(郡)이 30이니, 임천(林川)·한산(韓山)·서천(舒川)이요, 현(縣)이 11이니, 회덕(懷德)·진잠(鎭岑)·연산(連山)·은진(恩津)·이산(尼山)·석성(石城)·부여(扶餘)·홍산(鴻山)·비인(庇仁)·남포(藍浦)·정산(定山)이다.



공주목, 1770년 팔도지도

공주목의 대전천



대전이란 이름은 어디서 어떻게

신증동국여지승람

- 柳浦川, 在儒城縣東二十里。源出全羅道珍山縣地界。省川, 在儒城縣東七里。源出連山, 珍山二縣地界, 合流經鎮岑縣, 至儒城縣東爲省川。大田川。在儒城縣東二十五里。源出全羅道錦山郡地界。○已上三川合流爲懷德縣之甲川。
- 유포천(혹은 애천), 유성현 동쪽 20리에 있다. 전라도 진산현 경계에서 발원한다. (유등천)
- 성천, 유성현 동쪽 7리에 있다. 연산과 진산 두 고을 경계에서 발원하여 진잠현에서 합류하여 지나, 유성현 동쪽에 이르러 성천이 된다. (유성천)
- 대전천, 유성현 동쪽 25리에 있다. 전라도 금산군 경계에서 발원한다.
- 이 세 냇물이 합류하여 회덕현의 갑천이 된다.



공주목, 1770년 팔도지도

회덕군에서 대전군으로

1895, 지방제도 개정과 공주부 회덕군

- 1895/6/18, 지방제도개혁으로 “대구역주의인 8도제를 폐지하고, 소구역주의에 입각하여 23부로 편제”하며, “부, 목, 군, 현 등을 군으로 단일화하여 총 337 군을 23부 아래로 분속”시켰다.

1896, 충청남도 회덕군

- 1896/2, 아관파천으로 인하여 김홍집 내각이 실각. 2/11 고종은 지방제도 개혁을 추진. 1896/8, 기존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시행하였음. 한성, 광주, 개성, 강화, 인천, 동래, 덕원, 경흥에는 따로 부를 두었고, 제주는 목을 설치. 총 13도, 1목, 332군.
- 이 과정에서 공주부 회덕군은 충청남도 회덕군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1894/10/9 고종실록

-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박제순(朴齊純)이 올린 장계(狀啓)의 등보(謄報)를 보니, '병영(兵營)의 영관(領官) 염도희(廉道希)가 병정 80명을 거느리고 연산(連山)과 진잠(鎭岑)을 나누어 순찰하고 돌아오다가 **공주(公州)와 대전(大田) 지방에 이르러 갑자기 비적(匪賊) 1만여 명을 만나 사로 잡혀서 불타 죽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11월, 공주 우금치 전투로 이어짐.

1914, 대전군 대전면

- 회덕군, 진잠군, 공주군 현내면(유성면)을 통합하여 대전군으로 명명.
- 대전역이 기존 고을 이름인 회덕면을 대신해 새로운 이름으로 채택된 상황.
- 대전군 대전면, 외남면, 내남면(회덕면), 북면, 동면, 산내면, 기성면, 진잠면, 유성면, 탄동면, 구즉면 등.

철도와 신흥도시 대전

철도 부설권은 어쩌다 일본에게 넘어갔는가

제국주의 열강과 철도지배의 경쟁

-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기공(1891)
- 영국의 중국 내 경봉철도(베이징-펑톈) 착공

조선 내 철도 부설 요구

- 1880년대 초부터 요구. 1882년 일본의 철도 이권 차지 시도,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실패.
- “부산과 의주간 철도를 통해 동아대륙으로 통하는 큰 길로 중국을 지나 인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일본군 사령관 야마가타 아리토모(1894/11)의 의견과 “경부선을 기초로, 시베리아와 일본철도를 연결”시키겠다는 오쿠마 시게노부의 구상 등을 검토해볼 때, 군사적이며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조선-러시아의 관계와 철도

- 일본의 경인선/경부선 부설권 획득 과정
 - (1) 청일전쟁 발발일에 조인 “잠정합동조약”(1894/8/20)
 - (2) 러시아 영향으로 인하여, 경인철도 부설권은 미국에, 경의철도 부설권은 프랑스에 양도(1896/3, 1896/7)
 - (3) 러시아 영향력의 약화와 미국 회사의 자금 부족
 - (4) “니시-로젠의정서”를 통해 러-일간 조약. 만한교환론(러시아-만주, 일본-조선).
 - (5) “경인철도양수계약”(1897/5/8), “경부철도합동” 조약 (18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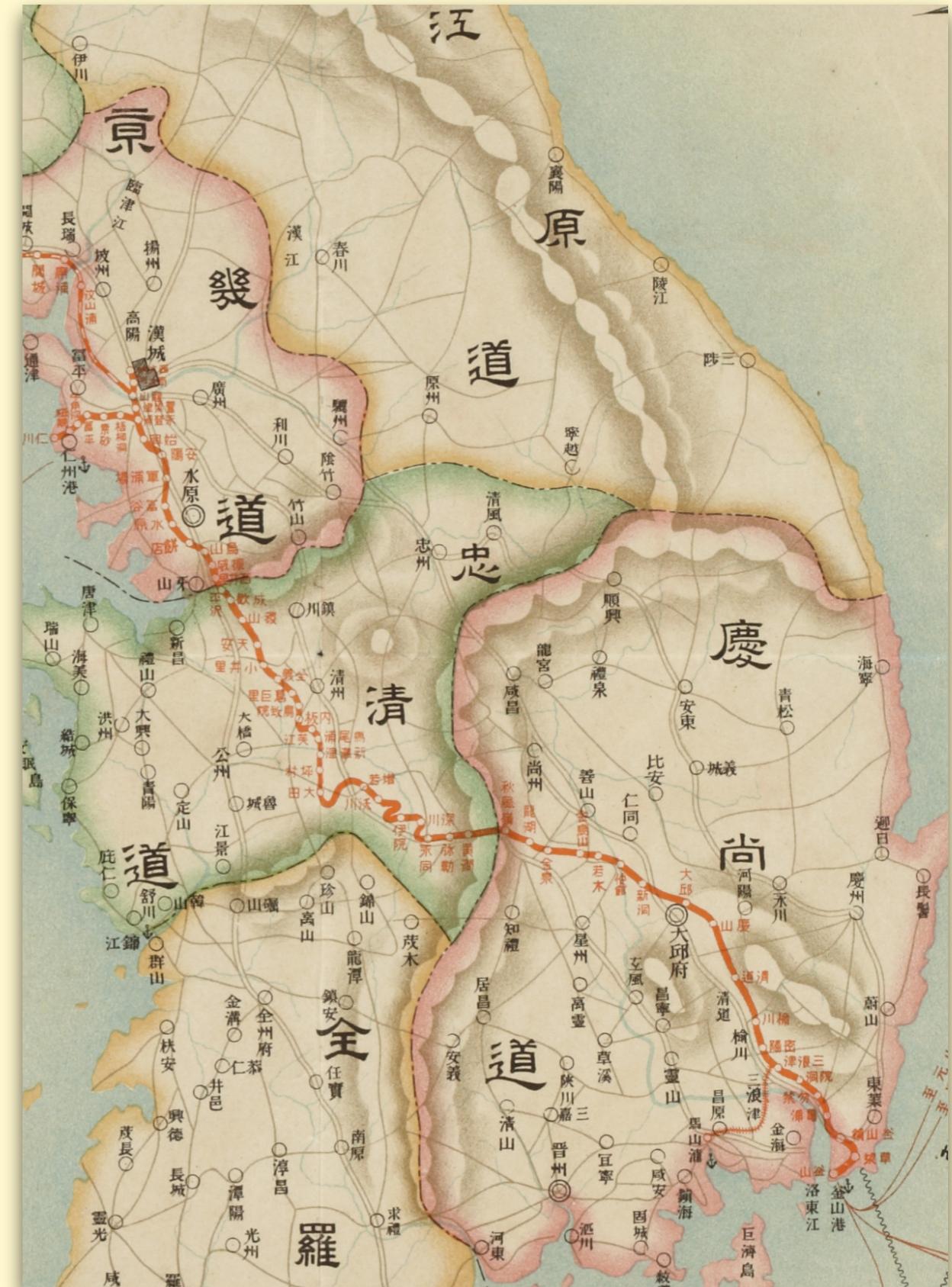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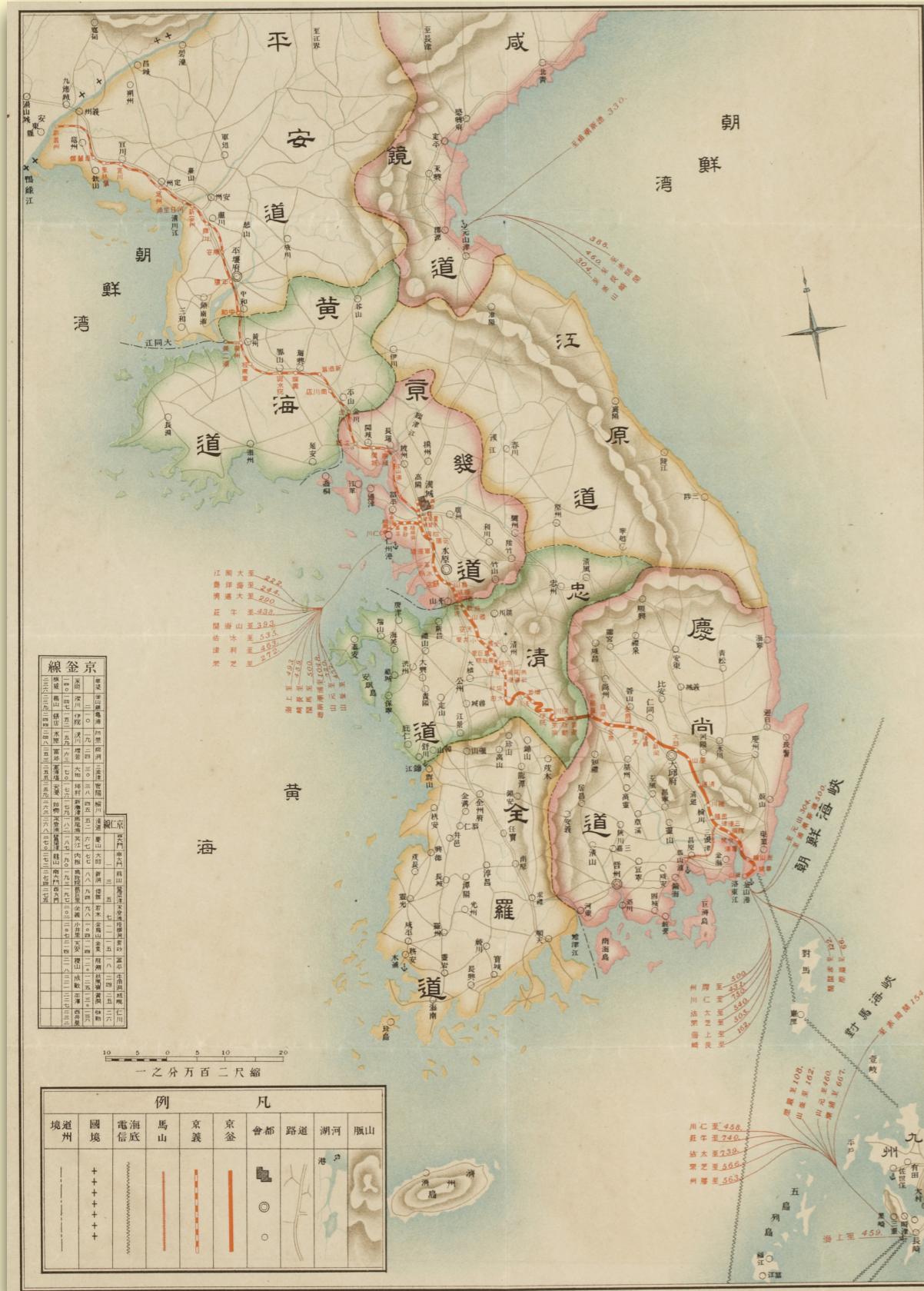
경부철도합동 조약

- 일본 측 요구
 - (1) 철도 용지의 무상 제공
 - (2) 영업이익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과세
 - (3) 완공 후 15년간 영업권, 일본이 전유
 - (4) 한국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10년씩 연장
- 조선 측 요구
 - (1) 철도부설 노동자는 조선인을 9할로 할 것
 - (2) 조선인 회사와 개인이 경부철도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음

* 1904년 러일전쟁 이후 통감부 설치와 철도의 ‘국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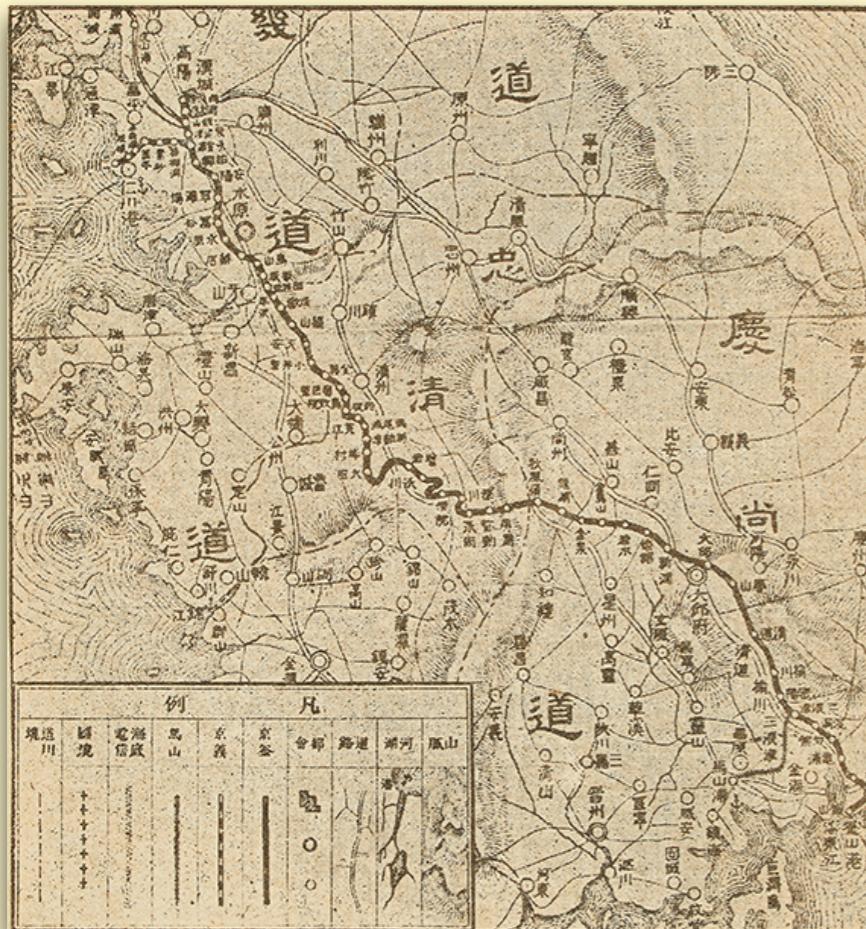
- 경부선, 경의선, 경인선, 삼마철도(삼랑진-마산) 모두 국유화함

철도와 신흥도시 대전



경부선지도(천안박물관 소장)

철도와 신흥도시 대전



경부철도노래



二
一

(門大南) 문대남

우령타계 토하난, 汽笛 소리에
 남대문을 등디고, 뼈나나가서
 날개가된 새라도, 못싸르겟네
 빨니부난 바람의, 형세갓호니
 늘근이와덟은이, 셔겨안졌고
 우리네와외국인, 갓리탓스나
 내외린소다갓리, 익히디늬니
 도고마한짠세상, 델노일윗네

도곡래노도렬부경

2 4
 mf 0.0.0.0. 5.5 5.3 | 2.1 2.3 5.5 6.5 | 1 0
 (1) 우령타계 토—하난 거역소리 에
 (2) 늘근니와 데리온니 쑥겨안就够 고

 2 4
 5.5 5.2 | 2.1 2.3 5.5 6.5 | 1 0
 남대문을 드○디고 뼈나나가 서
 우리네와 외—국인 갓리탓스 나

 2 4
 5.3 1.3 | 2.1 2.3 5.3 1.5 | 1 0
 빨니부난 바—람의 형세갓호 니
 내외린소 다 | 갓리 익히디내 니

 2 4
 5.3 4.2 | 3.4 2.3 5.5 6.5 | 1 0
 날개가된 새—라도 못싸르겟 네
 도고마한 쌔—세상 델노일윗 네

어쩌다가 '대전역'이 생겼나

경부선 부설의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 1885년, 부산상법회의소 서기 마쓰다 고조 일행이 4년 동안 조선을 조사하고 1888년 조선 여행기를 책으로 발행함. 이는 이후 동학농민군과의 전투와 경부철도 부설에 영향을 미침. 이를 1차 답사로 봄.
- 1892년, 일본군 참모차장 가와우에 소로쿠(가와카미 소로쿠)가 유사시 군대와 군수품 등을 부산에서 한양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일본이 반드시 경부철도 부설해야 한다고 주장. 일본 외무성은 부산 주재 총영사 무로두 요시후미에게 경부철도 노선예정지 답사를 명함. 그해 8월 카와노 텐즈이가 사냥꾼으로 가장하여 한양-용인-청주-문의-상주-대구-밀양-삼랑진-부산진 등을 답사했고, 이후 **"안동-선산-상주-보은-청주-진천-안성" 경유 노선을 선정 보고**. 이를 2차 답사로 봄.
-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고, 이후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 1894년 7월, 일본외상 무쓰 무네미쓰가 다케우치 츠나(이후 경부철도 이사)를 파견하였고, 경부선과 경인선 부설을 계획했음. 그해 7월 "조일잠정합동 조약" 체결. 이후 10월 공학박사 센고쿠 미쓰구 등을 파견해 **한양-인천, 영등포-청주, 청주-대구, 대구-부산** 등 측량을 실시. 1896년 7월, 경부선 건설을 위해 경부철도주식회사 설립. 이를 3차 답사로 봄.
- 1899년, 경부철도주식회사는 **한양-노량진-수원-공주-논산-진산-금산-영동-대구-밀양-부산**에 이르는 470km를 답사. 군부는 부산-한양 간 최단거리를 요구하며 직선화 요구. 이를 4차 답사로 봄.
- 1900년, 기사장 카사이 아이지로는 기존 답사보고 기초로 직선거리 중심으로 현재 경부선 노선 확정.



어쩌다가 '대전역'이 생겼나

더 더 자세히 살펴보면

- 현재 구간

서울 - 수원 - 평택 - 천안 - 조치원 - 대전 - 영동 - 황간 - 김천 - 대구 - 삼랑진 - 부산

- 마산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일본은 마산을 연결하고 싶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결국 지선으로 연결하였음. 이후, 마산과 삼랑진을 연결하는 "마삼철도"를 건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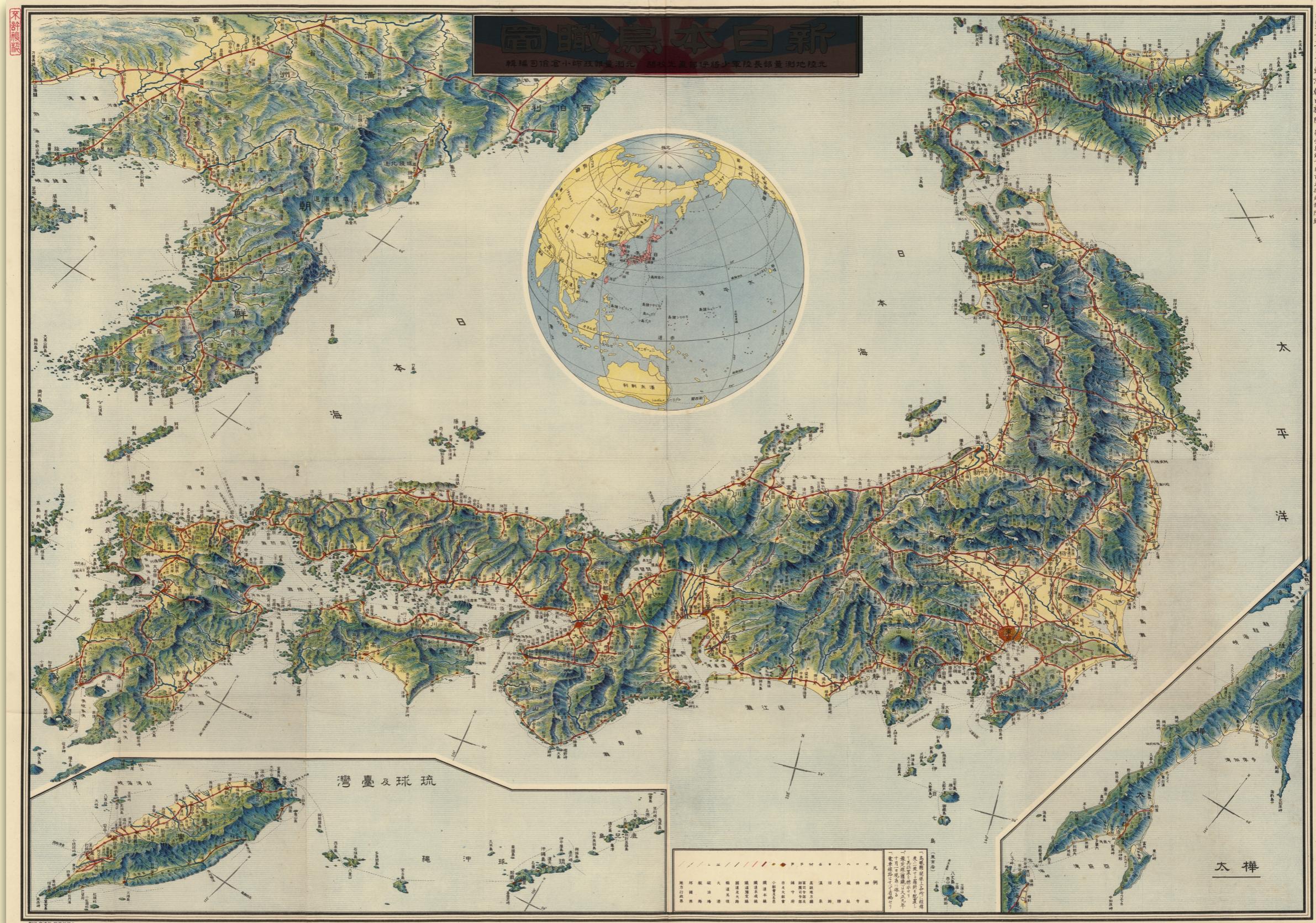
- 대전은 어쩌다가?

본래, 공주와 청주 등에 역을 둘 계획이었음. 당시 대전은 지명조차 희미한 상황. 더구나 공주와 청주는 오랜 도시이며, 역을 운영할 만한 기초적인 인프라도 갖춰져 있던 것으로 보임. 당시 **러일전쟁**의 개전으로, 공사를 속성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토지수용 절차와 주민의 저항이 없었던 '한적한' 대전**에 역을 놓기로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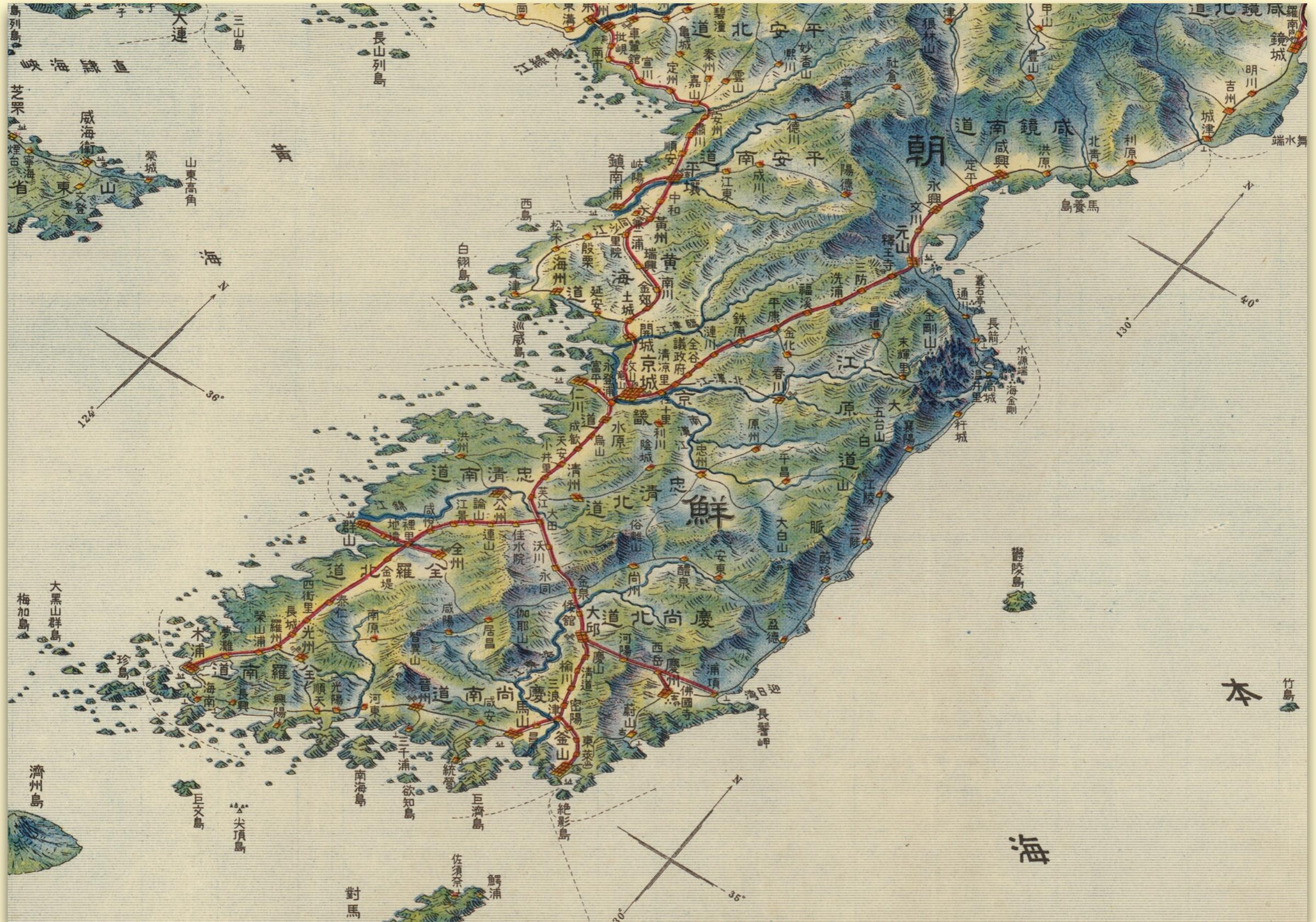
- 조치원은?

조치원은 작은 벽촌. 대전과 마찬가지로 경부선 철도를 놓기 위한 일본인 측량사와 노동자가 거주하기 시작했고, 1905년 개통시 역이 설정되면서 신흥도시로 발전했음. 교통 이점으로 일본인교육기관인 조치원공립심상소 학교(1906)에 신탄진, 부강, 천안, 성환 등의 일본인들이 이곳에 다녔는데, 이를 기초로 할 때, 조치원의 지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철도와 신흥도시 대전



**'해 뜨는 대전'
'해 지는 공주'**

1900-1910년 사이 일본인의 진출

일본인 인구의 변화

- 급증: 1905/1, 188명 -> 1905/12, 609명 -> 1910/12, 2,479명
- 1905/11, "대전거류민회"가 출범했으며, 거류지를 6개 구로 나누어 구장 선출
 - 공주의 경우, 1906/4에 "공주일본인회" 조직
- 1907, "대전거류민회"를 중심으로 소제동에 대전신사 설립
 - 부산/인천 등 개항장의 전관거류지(치외법권지역)이 아닌 조선 내륙 중심에 신사가 세워진 건 무척 독특한 일. 이주민 집단의 통합과 안정을 심리적으로 지원하며,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
- 1914, 대전군 신설
 - 당시 인구 일본인 3,435명, 한국인 1,556명
 - 이러한 상황은 대전면역이 확장되는 1926년까지 지속.

1909년 대전 출생 '쓰지 만타로'

- 그는 근강상인(전국각지에 지점을 두고 다양한 상품과 거래를 행하며, 공동기업이나 회계방식을 동원하여 합리적 경영을 한 상인)의 후예.
- "종전(終戰) 전의 한 시기를 제외하곤, 일찍이 나는 이 도시에 대립하는 두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게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식민통치자들 쪽에 있었고, 그들이 통치를 받는 쪽에 있었다는 사실에 눈을 감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예 생각을 못했던 것인지, 이 도시의 특이한 분위기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인지, 지금에 와 생각해 보게 된다."

‘해 뜨는 대전’과 ‘해 지는 공주’

朝鮮總督府官

第四七七號

大正三年三月五日(第三回初稿可)

1914/3/5 총독부관보 477호

1914/3/16 총독부관보 호외 2호

대전

1921/7/19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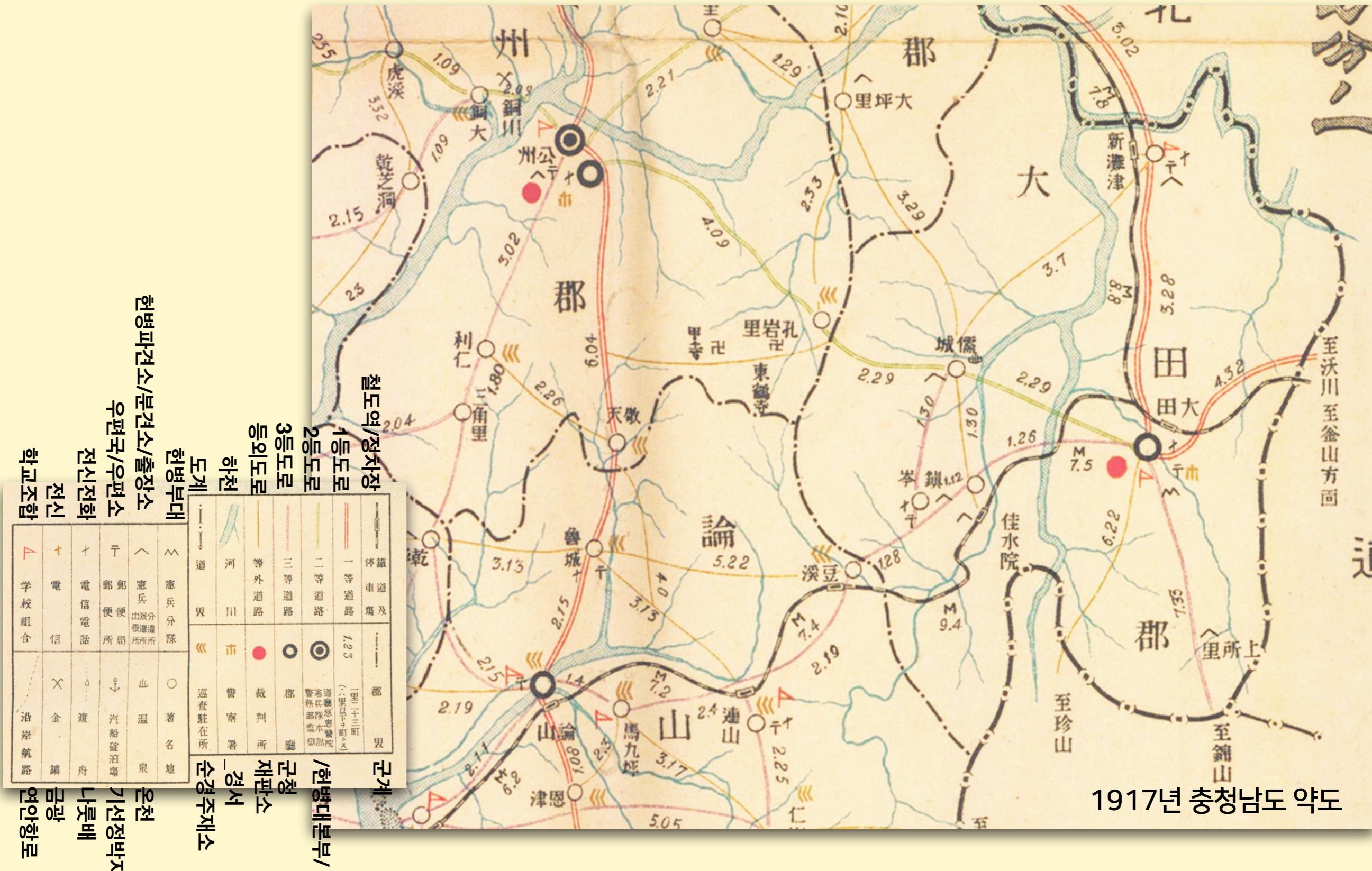
- "충남 대전은 경부선 개통 후에 창설된 조선 내 유일의 도시로 **경부, 호남 양 선의 분기점**을 액하여 축년 비상한 발달을 시하고 금에 **인구 칠천 여의 도시**를 형성함이 지하야 각 **학교기타입 관아공서는 물론 은행 회사 등의 설치**에 의하여 시세가 점차 진에 부함으로 목하 관민이 일치해야 시의 발전에 협력하는 중인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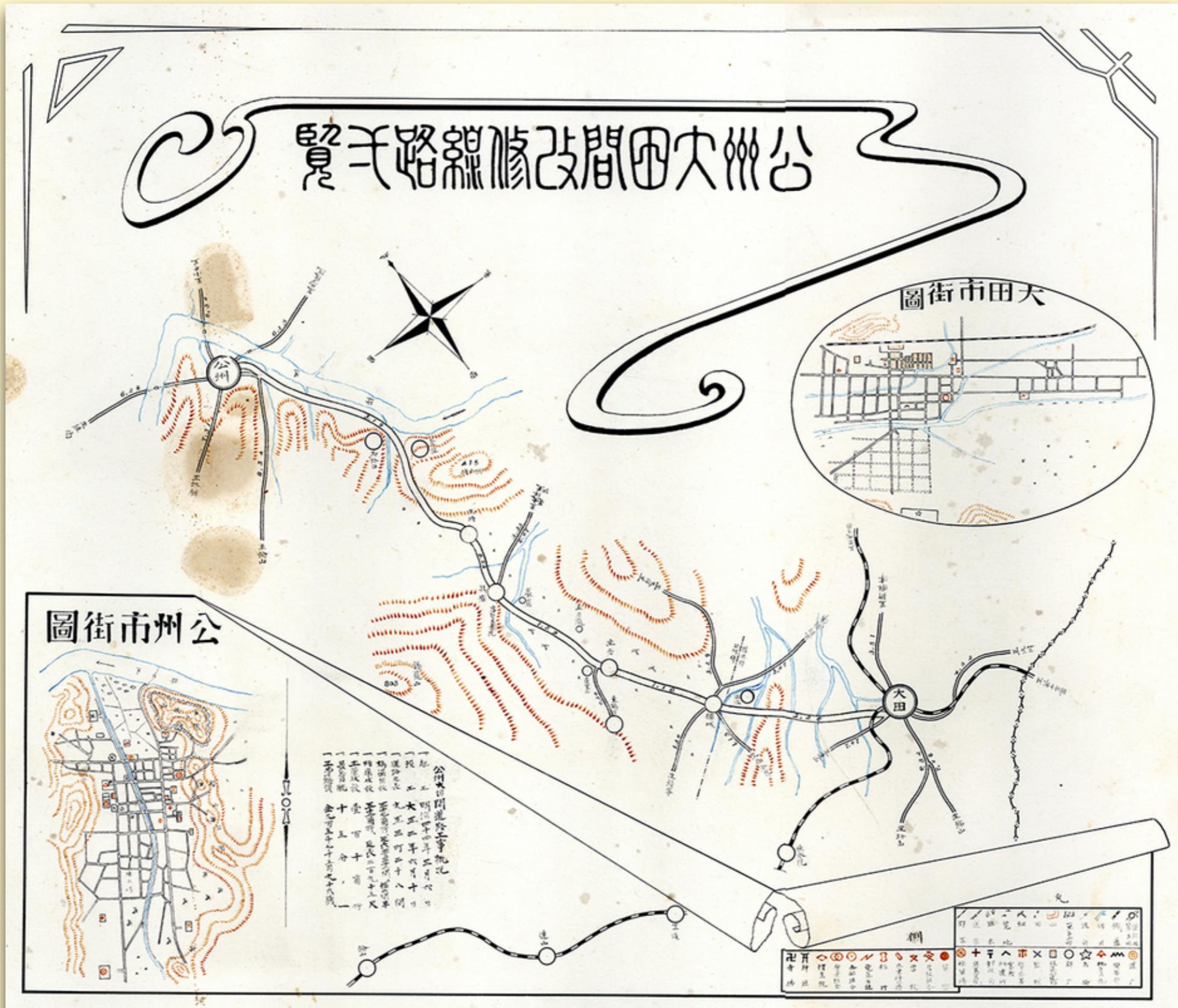
시의 확장 발달에 반하야 현재의 대전면 지역은 협소를 고함에 지함으로써 이 관할지역 확장의 필요를 인하고 목하 **도청을 경해야 모처에 향해야 인접지역의 병합을 청원**하는 동시에 연 시가지의 시중(심)을 ○○하는 하천이 범람해야 수재의 액에 조과함으로써 ○천 중 이천의 유역을 변경해야 현재의 철도 이동으로 이하기로 개○ 공사비 십팔만원을 계상하고 ○비 지방비의 보조를 득해야 3개년 계속 사업으로 하여 명년도부터 기공할 계획을 입해야 시역 기처에 인가중 ○중이라는 대차와 동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장래 30개년을 기해야 인구 45만을 포용할 도시건설의 목적**을 원하는 일방으로 불원에 실현할 수력 전기사업의 완성을 협해야 제공업에 대한 저렴한 동력을 공급해야 공업지로 **발전**을 책하고 경히 **식산홍업교육 기타의 발달을 속진해야 특색 있는 대전 시의 건설**에 용력하되 시민히 몽매함에도 망각치 못하는 연말의 희망, 즉, **충청남도청 이전 속진**의 문제에 향하여 관민일치로 ○진을 기하리라더라."

1926/1/17 조선일보

- "작년(1925)에 경남도청이 진주로부터 부산에 이전된 뒤로 기타 도청의 이전설 끈을 달어 각기 관계 지방에서는 상당히 문제 … 충남도청이 조치원 우는 천안 혹은 대전으로 이전된다 또 일설에는 충청남북도를 합병하고 도청을 조치원에 두리라 … 대전의 번영회가 금전구취의 일방법으로 도청 이전의 운동을 개시하며 공주나 청주도 가만히 잇지 못해야 반대운동을 개시하고"

1910년대, 공주와 대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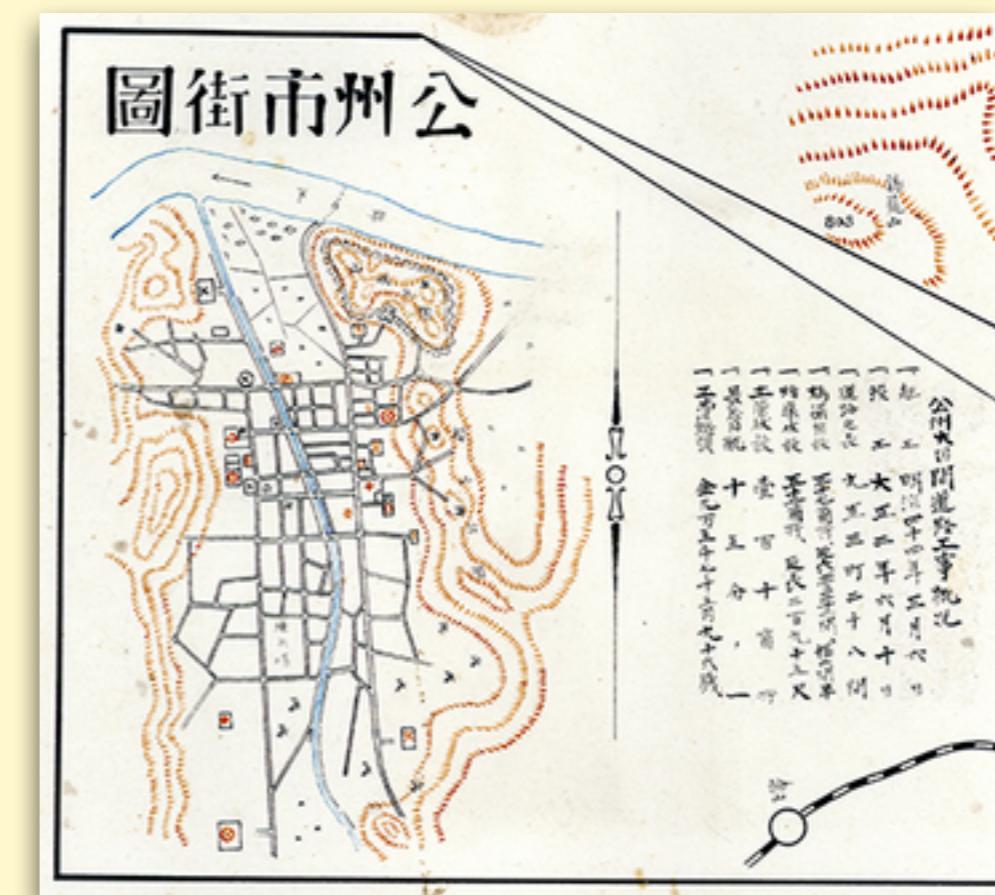


1911년 공주-대전간 개수선로일람 / 공주시가도

1911-1913

대전

- 1910년 직후 호남선/경부선의 분기점으로 대전역 결정
- 도시간 연결성이 원활해졌으며, 돈 많은 유자나 일본인들이 이 늘어나 번성
- 기존 충청남도의 중심지인 공주와 대전을 잇는 교통로 개선이 요구되었고, 1911-1913년 공주-대전 간 도로 개수 공사.
- 경로: 금강 남쪽 창벽 - 마티고개 - 공암 - 규암 - 유성 - 대전역
- 이 공사를 위해 당시 충남도장관 박중양이 조선총독부에 교섭을 벌이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만나 공사비를 타냄.
- 1913년 공주 산성공원(공산성)에서 도로 개통식. 개회장에는 공사관계자, 충남도 평의원, 대전에서 온 학교조합 관리자, 신문기자, 공주유지 등이 모두 모임.
- '해 뜨는 대전'으로 가는 길을 알린 것이나, 곧 이어질 '해 지는 공주'로 이어진 건 아닌가 생각됨.



공주의 입장

1931/1/16 조선일보

- "대전이 경부선의 요지로 호남선의 분기점을 겸해야 저들로서는 전연 신개척 한 신성도시로 제20사단의 1개 연대가 주둔되었고 중학교의 소재지로 되였으며 외지(바깥 지역)의 시설도 이에 준하여 완전히 신면목을 형성하게 되였스니 충남의 도청이 조만에 이 고장으로 갈 것은 식자로서 항상 예감 또 예측하든 바이다.

공주는 그 충남도 관내의 위치상으로 자못 적당하겠다. 더욱히 홍성, 당진, 서산, 서천과 아산, 예산 등 서부 방면 각 군의 때문에 그 왕복의 거리를 보아서 그려할 것이다. 대전은 전 조선적으로 요지이오. 더욱히 남북교통의 중추로서 일대 요지됨으로 틀림업스나 동남에 치우쳐있어서 도의 지리상으로는 불편도 업지 안타. 다만 전술(한 것)과 가튼 정치지리적 제조건은 오늘날에 잇서 조선의 위정당으로서 도청의 이전단행이 잇슬 일이오. 이것이 한번 확정발표된 바 아마 이전 반대의 물의와 여론도 고려하지 아니할 ○심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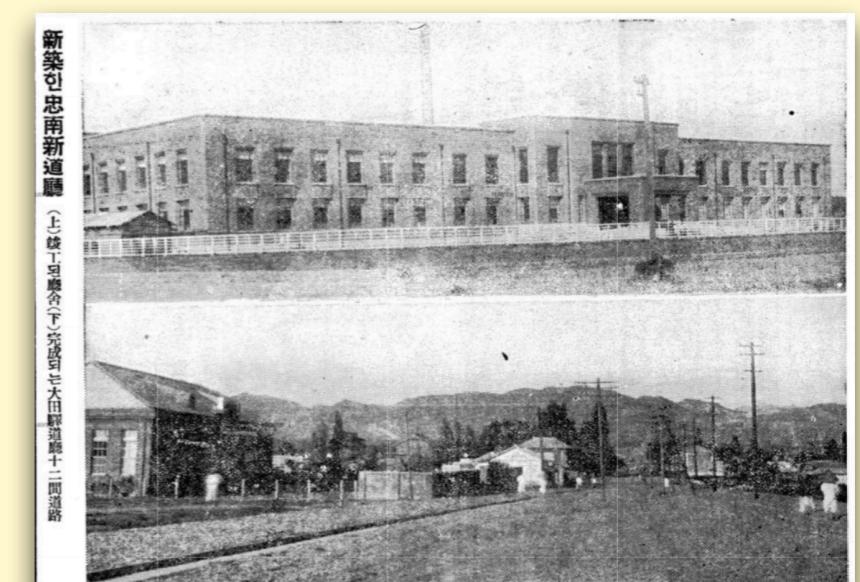
… 공주 … 무엇을 교환 조건으로 걸 것이냐? 기존 한 고보교 외에 완전한 여자고보, 충실한 농학교 기타 이에 딸리는 도립공장 등의 존속/확장 혹은 임항 철도의 조속한 실현 또는 금강교의 가설 등등을 우선 헤일 수 있다. 더욱히 공주와 그 도시를 중심으로 조선인 유지 유력한 토녀들이 금후에 우선 그 지방적인 산업적 자위를 위한 진지 및 면밀한 기획이 있고 싶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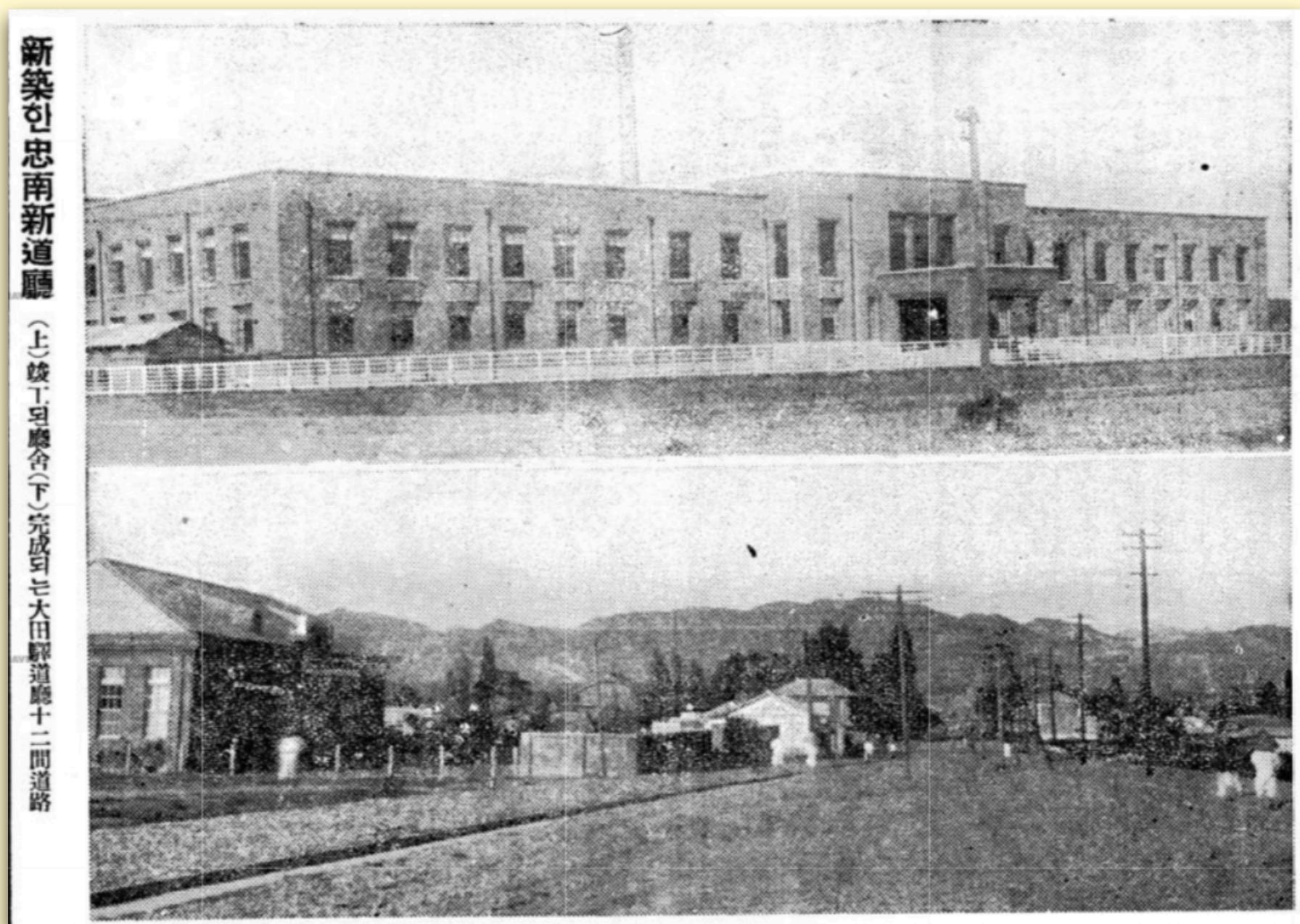
1931/1/16 동아일보

- "지난 13일 오후 2시경 … 상경 진정원 30인으로부터 총독으로부터 도청은 대전에 이전할 것이라는 언명을 바덧다고 전화가 오게 되자 … 공주시민에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도청은 대전으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울음석거 전달되었다"

1932/9/13 조선일보

- 대전역과 도청 간의 12간 도로와 상수도공사는 이정식인 10월 1일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급급히 진행 중이라 한다.





'해 뜨는 대전'과 '해 지는 공주'

